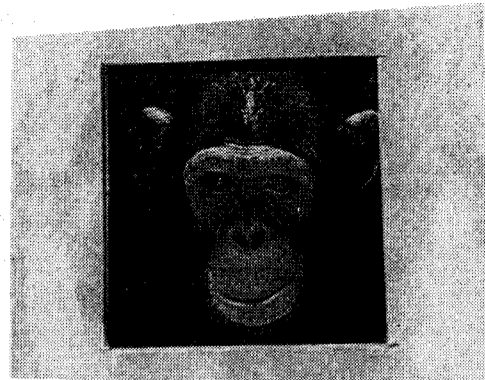


□ 사회변화에 따른 이름짓기

이름, 단 한 자로 보는 시대상



성씨는 소규모 원시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남자에게는 권력지향적 성격을, 여자에게는 순종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름'의 의미로 변천되었다



유원준

(사학과 교수)

성씨(姓氏)는 본래 부족에서 분화한 소규모 친족공동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가계(家系)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화된 것은 한(漢)나라 때부터이다. 성(姓)은 원래 외가에서 출생하던 관습에서 나온 것으로 모계(母系)의 출생 신분을 밝히는 것이었고, 씨(氏)는 그와 달리 남성사회에서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었으나 특히 씨가 다르더라도 성이 같을 경우 결혼할 수 없다는 동성불혼(同姓不婚)의 규범이 확립되면서 성씨(姓氏)의 구별은 없어지고 말았다.

이름에 대한 주술적 사고

중국에서 일반 서민이 성과 이름을 온전하게 갖게 된 것은 진한(秦漢) 이후부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왕실에 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유명무실했고,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비로소 성씨 1자에 이름 2자를 짓는 방식이 귀족층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 초기에도 마찬가지로 여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름만 갖고 있

었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자식 성과 한글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여자에게는 아명만 주어졌을 뿐 호적에 올릴 정식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노비에게는 성이 없었던 것만 조선 중기, 군역(軍役)부와 등에 따른 것이었고, 우리나라 사람 모두 성과 명을 갖게 된 것은 구한말로서 1910년 민적부(民籍簿)를 작성할 때까지도 성씨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1.3배나 많았을 정도였다.

17세기의 사료에 나타난 여자들의 아명은 시향이, 시오월, 시종이냥외 등으로 오늘날과는 달리 3~5자 정도의 긴 이름이 대부분이며 결혼한 뒤에는 -대이라는 대호(宅號)가 이름을 대신했다. 여자들에게 정식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던 것이 육자, 영자 등 일본식 작명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까닭이기도 했다. 신분이 천한 노비들의 경우에는 강아지(江阿之), 도야지(道也之) 등 동물명을 그대로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고 이뿐이(入分伊)같이 외모를 가지고 지은 이름도 일부 있었는데 친민이 아니더라도 이름에 '똥'이나 '쇠' 등 천하게 여기는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천한 이름을 지어야 장수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이름에 대한 이 같은 주술적 사고는 이

름을 단순한 호칭 이상의 것으로 간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명이 새 생명의 개성과 희망 담아야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관념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선 순위 어른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자(字), 자(字) 등 1자 1자 붙여 말하는 것을 예외로 알았으며 성년이 되면 자(字)를, 학문 등에 일가를 이루게 되면 호(號)를 갖는 등 이름에도 나름대로의 위계를 부여하였다.

성명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성명학(姓名學)의 주장은 음양·획수에 따른 길흉을 주장하는데 통상 이름 3자의 획수가 모두 짝수나 홀수로 이루어진 경우를 흉상(凶象)으로 기피한다. 심지어 한 성명학(姓名學) 책에서는 백범 김구(白凡 金九) 선생의 이름이 각각 8획과 2획인 흉상이어서 암살당했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물론 이것은 황당한 것으로서 그렇다만 김구 선생의 이름이 짝수와 홀수로 이루어졌다면 -외란된 표현이지만 김삼(金三)이었다면 -암살당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참으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또 일부에서는 오(五)·구(九)와 같은 숫자(數字)는 그 의미를 중시해서 각각 5·9획으로 간주하기도 하니 더욱 그러하다.

우리 이름은 항렬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재량껏 선택할 수 있는 글자는 사실상 1자에 불과한 데다가 부모들이 바라는 지식들의 장래 또한 매우 획일적이어서 남자의 이름에는 권력지향인, 여자의 이름에는 순종과 아름다움을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현상의 하나는 특정 음에 대한 선호가 지나치게 심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한글전용화 세대의 동음이의어 식별감각 쇠퇴와 밀접하게 맞물린 현상이라고도 생각되는데 동음이의어가 주는 유사한 이미지 때문에 특정 음가의 대한 선호와 기피가 매우 심하여 동명이인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글이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종래의 한자이름이 중국식이기 때문에 싫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지만 한글이름마저도 고유의 우리말이기보다는 사실상 영어식 감각이 더 물씬 풍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성과 항렬자를 제외하고 남은 단 1자를 새 생명의 개성과 부모의 희망을 담아 아름답게 작명하리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름을 보면서 이름 석 자 잘 남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페미니즘과 이름

□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 함께 하자

"우리가 목을대를 울리며 뜨겁게 상기하는 부계 혈통주의가 어머니인 여성을 낙태 수술대 위로 오르게 하고 여자아기의 조각난 몸뚱이를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것이다"

이박혜경 (여성학강사)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은 그동안 써 오던 부계 성 앞이나 뒤에 모계 성을 붙여 쓰자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 네 개의 성씨를 모두 물려 주지 않고 어머니의 모계 성과 아버지의 부계 성을 물려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계로만 이어지던 성물림 체계가 변화하게 된다. 이 운동이 '왜 아버지 것만 물려 받아야 하느냐, 어머니 것도 함께 물려 받아야 평등하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부계 혈통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은 부계 혈통주의에 대한 교과서적인 대응이기보다는, 여아 낙태가 일상화되어 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급박한 현실적 요구에서 비롯됐다. 우리 사회의 태아 성감별 낙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라 아니라 매우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무감각도 그만큼 절기다. 낙태 그 자체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는 산아 제한 방법의 한 가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아 아기는 죽어도 좋다는 무서운 가치관이 전혀 무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남아 선호 사

여아낙태 위기에서 출발, 부계 혈통주의에 대한 저항

상이 그만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박한 사람들의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으려는 바램'은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지켜 준다고 여겨지는 혈통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혈통주의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또 다른 큰 과제일 테지만, 우선 우리의 혈통주의가 단지 핏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부계 혈통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짚어야 한다. 핏줄이란 것이 아버지에서 아들이라는 남성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목을대를 울리며 뜨겁게 상기하는 이 부계 혈통주의가 어머니인 여성을 낙태 수술대 위로 오르게 하고 여아 아기의 조각난 몸뚱이를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것이다. 아들 선호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귀여운 우리의 풍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의 이면에 이렇게 무서운 횡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애교에 더 이상 편안해 질 수가 없다.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은 이러한 부계 혈통주의의 최대의 징표인 성씨 물림의 남성 중심성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별스럽게 눈에 띄는 어색한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이 우리도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남아 선호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부모 성 함께 쓰기가 부계 혈통주의를 공격하기에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 성감별 낙태에 대한 분노가 보신탕 먹는 사람에 대한 역한 감정보다 더 치열하지 않은 우리의 의식을 두드려 깨울 더 좋은 방법을, 그 전까지 이 운동을 함께 하자.

□ 사주와 이름

이름이란 웃은 꾸밈 수 있다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

해서 잘 살고 나쁜 이름을

가졌다 하여 꼭 단명

하리란 법은 없다"

아무리 비단처럼 좋은 옷이라 하여도 그 옷이 자기 몸에 너무 크거나 작으면 활동에 장애를 줄 것이며, 구멍난 누더기 옷이라면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통풍이 안되는 갑갑한 옷이라면 땀이 찼 수도 있다.

이름은 바로 이러한 옷과 같다. 기왕이면 좋은 이름, 자신에게 맞는 이름을 갖는다면 자신이 지니고 태어났을 지도 모르는 사주의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름의 신비는 중국 송나라 때쯤 드러나기 시작했고 성명학이란 학문으로 발전되었다. 한자에는 수백 년 먹은 영(靈)이 깃들어 있으며 성명학은 이러한 가정 아래 성립된다. 영(靈)이 깃든 문자를 음양과 오행으로 분석하는 것이 성명학이다.

조금은 믿기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성명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예는 역사 속 인물들부터 동시대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수양대군 시

절 충절을 지키다 사형당한 사육신들의 이름자에는 재주는 풀었으나 실패와 요절이 보이는 수가 많았다. 또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에 포함된 인물들은 흉수가 보이는 이름자를 가졌으며, 성수대교 붕괴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에서는 흉수 중에서도 단명하는 수로 해석되는 22수가 빠지지 않고 보인다. 위 사례들은 오행 중에서도 수리오행을 통해 분석한 것이라 한다.

학교 앞 작명소의 한 스님은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 해서 잘 살고 나쁜 이름을 가졌다 하여 꼭 단명하리란 법은 없다"며 "다만 몇 천년간 내려오는 동양철학에서 보았을 때 성명학은 무시할 수 없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평생 부르는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명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운을 의우는 것일 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주술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수원 기자)

국제교류센터 업무안내

가슴을 펴시다. 밝고 넓은 세계를 향해

■ 국제교류센터 업무내용

- 대학의 국제화
- 구성원의 국제교류 추진
- 각종 문화 연수 및 교류
- 국제학술회의 주최
- 국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환학생의 초청·파견
- 교환교수의 초청·파견
- 유학 안내 업무

■ 1998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선발계획

1. 파견대학
미국 6명, 영국 3명, 캐나다 1명, 호주 5명, 노르웨이 2명, 중국 4명
2. 접수기간
'98년 3월 16일(월)~3월 31일(화)
3. 구비서류
① 교환학생 신청서(소정양식)
② 전학년 성적증명서 국문/영문 각 1통
③ 영문 재학증명서
④ 학과장 추천서(소정양식)
⑤ 해당언어 수학기획서(A4 1매)
⑥ 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TOEFL, IELTS, JPT 등)
4. 지원자격
① 3학년생 이하 재학생 또는 석사과정 1기 대학원생
② 영어권 지원자는 최근 2년내 외국어 성적 TOEFL(550점 이상), IELTS(6.2이상) 소지자
③ 전학년 평점 3.0 이상인 자
5. 기타 일정안내
① 중국어 필기시험: 4. 3(금) 오후 5시
② 면접시험: 4. 9(목), 4. 10(금)
③ 최종합격자 발표: 4. 20(월)

6. 선발방법: 어학능력 및 면접 평가

7. 원서교부처
① 서울: 국제교류센터(961-0031~3)
② 수원: 장학복지과(0331-201-2021~3)
* 세부 대학별 지원자격은 각 대학별 게시판이나 인터넷 http://www.kyunghee.ac.kr 또는 문의처를 참조하세요
* 선발일정 및 인원은 자매교 사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교환교비 해외연구파견자 선발

1. 신청접수: 3. 30(월)~4. 6(월)
2. 파견기간: 1998. 9. 1~1999. 8. 31
3. 선발심사: 4월 중순

■ 국제 의전요원 교육 프로그램

- 본교 주최 국제행사나 학술회의에서 활동할 국제 의전요원의 선발과 교육
1. 신청기간: 3. 16(월)~3. 23(월)
 2. 선발심사: 서류전형/외국어 능력/면접
 3. 교육기간: 3. 28(토)~4. 20(월)
 4. 선발인원: 15명~20명



국제교류센터

Tel) 961-0331~33
Fax) 962-4343
e-mail) cie@nms.kyunghee.ac.kr

'98 경희가족을 위한 노트북 특판

1. 기간: 1998. 3. 16(월)~3. 28(토) 09:00~17:30
2. 장소: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
3. 참여업체: 삼성전자, 대우통신, LG IBM

회사	삼성	대우	LG IBM
모델명	S600-A1	CN530-1G307C	ThinkPad 365XD
CPU	MMX 150Mhz	P-166Mhz(MMX)	P-150Mhz
LCD	12.1" SVGA TFT	12.1" SVGA TFT	11.3" SVGA TFT
MEMORY	16MB	16MB	24MB
CACHE	512KB	512KB	None
HDD	2.1GB	2GB	1.35GB
FDD	1.44MB 착탈식	1.44MB 착탈식	1.44MB 외장형
CD-ROM	20배속	20배속	8배속
SOUND	16Bit 스테레오	16Bit 스테레오	16Bit 스테레오
MODEM	33.6K(내장)	*Option	56K((PCMC)
KEYBOARD	87키	88키	85키
포인팅 장치	터치패드	터치패드	트래크 포인트 III
BATTERY	NiMH	NiMH	NiMH
무게	3.0KG	2.5KG	2.79KG
크기	241mm×309mm×43.5mm	299mm×229mm×38mm	297mm×211mm×48mm
가방	휴대용	배낭형	휴대용
가격	2,585,000	2,717,000	2,390,000
구입방법	현금, 카드, 할부금융	현금, 카드, 할부금융	현금, 카드, 할부금융
A/S	삼성전자 통합 A/S센터 02-3451-3366	대우통신 Service Bank	LG-IBM서비스센터 630-7777

- 행사기간내 행사장 전화번호: 02-961-0938
- Option 및 기타 문의사항은 행사장으로 문의 요망.

정보처리센터